리뉴얼된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전시에 나타난 한반도 도래인

세키네 히데유키*
sekine@gachon.ac.kr

〈目次〉

1. 머리말
2. 리뉴얼 작업의 토대
 2.1 리뉴얼 작업의 방침
 2.2 리뉴얼 작업의 인력
 2.3 리뉴얼 작업의 토대연구
3. 야요이 시대의 한반도 도래인
 3.1 정보전시의 내용
 3.2 한반도 도래인의 위상
4. 고훈 시대의 한반도 도래인
 4.1 정보전시의 내용
 4.2 한반도 도래인의 위상
5. 맺음말

主題語: 도래인(Immigrant), 국립역사민속박물관(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전시(exhibition), 야요이시대(Yayoi piriod), 고훈시대(Kofun period), 민족이동(migration), 문화전파(cultural diffusion)

1. 머리말

일본인의 형성연구에서 한반도로부터 건너온 이주자는 근대이전부터 연구되어 왔다. 이를 일본에서는 '도래인(渡來人)'[1]이라고 부르고 문헌사학·체질인류학·고고학·문화인류학 등에서 그 '옛 터전'·'도래 규모'·'역할' 등에 대해 논의되어 왔다. 그 평가는 시대와 분야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메이지(明治, 1868~1912)·다이쇼(大正, 1912~1925)기의 인류학계[2]에서는 한반도 도래인이 선주민을 구축해 현대일본인의 선조가 되었다는 '인종교체설'이 주류학설이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문헌사학계에서는 도래 규모가 매우 적다는 견해가 정설로 통해 왔다. 대체로 쇼와(昭和, 1925~1989)에 들어서면서 '인종교체설'이 부정되어 고대한일관계를 도래인의 민족이동 없이 문화전파 차원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그러면 오늘날의 학계에서는 한반도 도래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 가천대학교 동양어문학과 교수

1) 과거에는 '귀화인'이라는 용어로 사용했으나 80년대에 '도래인'으로 변경되었다.

2) 당시 인류학과 고고학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박물관 전시는 공적 지식으로서 교과서에 준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전에 필자는 일본을 대표하는 박물관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전시에 나타난 한반도 도래인을 현대 일본학계의 도래인 인식의 이정표로 삼아 그 위상을 고찰한 바 있다.[3] 그 분석대상은 1996년~1997년에 잠정적 리뉴얼 작업을 마친 전시물[4]이었는데(이하 제Ⅰ기 전시) 최근에 전면적 리뉴얼 작업을 마치고 지난 2019년 3월 19일에 개관했다(이하 제Ⅱ기 전시). 제Ⅱ기 전시는 그동안 누적된 연구 성과와 함께 학계의 인식변화도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번에 리뉴얼된 전시에 나타난 한반도 도래인의 위상을 살펴보고 현상과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에는 첫째 도래인의 '옛 터전'을 한반도로 추정하고 있는지, 둘째 '도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산정하고 있는지, 셋째 '도래인의 역할'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척도로 선정한다. 또한 이러한 기준을 야요이 시대(弥生時代)와 고훈 시대(古墳時代)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번 리뉴얼의 토대로서 전체 리뉴얼 방침과 고대 전시실의 리뉴얼 방침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리뉴얼 작업에 참여한 인력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리뉴얼을 토대로 활용했던 토대연구의 특징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한 다음, 전시에 나타난 한반도 도래인의 구체적 내용을 뽑아내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박물관 전시는 설명적 정보가 없는 '물건전시'와 그림이나 텍스트로 아이디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전시'로 나눠지는데 이 글에서는 후자에 한정한다. 그리고 정보전시에는 패널 전시 외에 보조적으로 음성안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Ⅰ기 전시에서는 이를 분석대상에 포함했지만 제Ⅱ기 전시의 조사 시점(2019년 7월) 당시에는 아직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제외했다. 대신 제Ⅱ기 전시에는 동영상 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부분을 텍스트화 하며 분석대상에 포함했다.

---

3) 세키네 히데유키(2015)「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전시에 나타난 한반도 도래인」『日本近代学研究』제49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235-256

4) 기본적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전시패널이나 전시자료 교체 등 부분적 갱신이었다. 그리고 '국제교류' 등의 시점을 반영하기도 했다. 藤尾慎一郎(2012)「総合展示第1 室新構築について」「第1回展示プロジェクト委員会資料」大学共同利用法人人間文化研究機構国立歴史民俗博物館, p.5

2. 리뉴얼 작업의 토대

2.1 리뉴얼 작업의 방침

2.1.1 전체 방침

1983년에 개관한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은 부분적 리뉴얼을 거쳐 2004년에 전면적인 리뉴얼 작업에 착수했다. 총합전시의 기본이념은 '21세기에서의 새로운 역사상의 재구축과 국제화로의 접근'이다. 그리고 「종합전시 리뉴얼 기본계획」에서는 ① 연구 성과의 반영, ② 국제화에 대한 대응, ③ 평생학습과 같은 일반인의 지적 수요에 대한 대응, 의 세 가지 '기본이념'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세 가지의 '기조 테마'와 두 가지의 '시점'이 설정되었었다.[5] 이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리뉴얼 작업의 방침

기본이념	**연구성과의 반영**	역사 연구 전문기관으로서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다양한 학문분야의 협력과 최신연구 설비에 의해 만들어지는 질 높은 연구 성과를 적시에 국내외에 공개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제화의 대응	국내외 역사 인식이 변화함으로써 다양한 갈등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역사인식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더욱 실증성이 높은 전시를 실시한다.
	일반인의 지적수요에 대한 대응	일반인의 다양한 지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전시방법을 사용한다. 종합전시 리뉴얼에서는 전시시설의 증축은 하지 않고 주실과 부실로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게 전시공간을 마련한다.
기조테마	**생활사**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의식주, 가족, 교통 등 기본적인 문화요소를 통사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사회적, 정치적 사건을 추가함으로써 사회생활의 역사를 재현한다.
	환경사	주로 환경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학제적 연구를 구사함으로써 자연과 인간과의 복잡한 관계를 시공으로 통합한다.
	국제교류	일본의 역사와 문화의 국제성을 세계사에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외국과의 대립·협력이라는 양면성을 전시에 반영한다.

5) 大学共同利用機関法人人間文化研究機構国立歴史民俗博物館(2004)「国立歴史民俗博物館総合展示リニューアル基本計画」大学共同利用機関法人人間文化研究機構国立歴史民俗博物館, p.59

시점	다양성	일본 열도의 소수민족 신분과 계층, 성별차이. 나이 차이 등의 역사와 문화를 마이너리티의 입장에서 새롭게 규명한다.
	현대적 시각	현대적 관점에 의한 역사관을 창출하여 이 시점을 전시공간 전체에 미침으로써 역사적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위의 여러 리뉴얼 방침 중 한반도 도래인에 관련된 것은 기본원칙의 '국제화로의 대응(역사인식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더욱 실증성이 높은 전시를 실시한다)'과 연구 성과의 반영(질 높은 연구 성과를 적시에 국내외에 공개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조테마의 '국제교류(일본의 역사와 문화의 국제성을 세계사에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외국과의 대립·협력이라는 양면성을 전시에 반영한다)'이다.

이를 한반도 도래인 전시에 적용하자면, 첫째 그 동안의 한반도 도래인에 관한 연구를 공개한다, 둘째 고대한일관계에 관한 한일 간의 역사인식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증성이 높은 한반도 도래인에 관한 전시를 한다, 셋째 한반도 도래인을 세계사 속에서 파악하고 한반도와의 대립과 협력의 양면성을 전시에 반영한다, 로 요약할 수 있다.

2.1.2 고대 전시실의 방침

리뉴얼 작업 대표인 후지오 신이치로(藤尾慎一郎, 1959~)는 기존의 제Ⅰ기 전시의 문제점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는데[6] 그 중 하나가 한반도 도래인과 관련이 있었다. 즉 '1996~1997년의 잠정적 개선을 했을 때 '국제화의 대응'을 도모했지만 한반도와의 국제관계에 대한 내용이 여전히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즉 한국 학계와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더욱 실증성이 높은 전시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이 기본방침이나 책임자의 관점을 보았을 때 한반도와의 관련성을 더욱더 고려하고 전시내용도 늘리는 방향으로 리뉴얼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지오는 제Ⅱ기 전시 개관 때 '총합전시 제1실'(제1전시실에서 개칭)의 리뉴얼 특징의 하나로 '한반도'·'홋카이도'·'오키나와'를 포함한 총합적 전시를 지향했음을 강조했다.[7] 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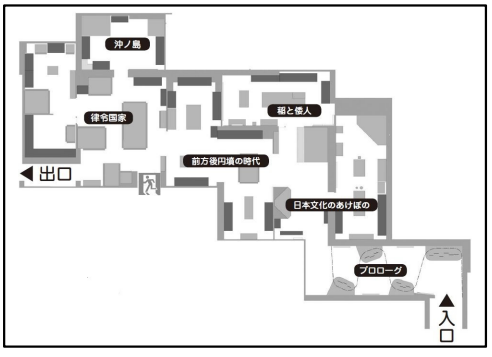
6) ① 민중생활사의 전시에서 다섯 개의 각 전시실 간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② 각 시대에서 인상적인 전시물이 정렬되어 있지만 단지 획기적 사물을 연결한 기념물 전시가 되어 있다는 점, ③ 1996~1997년의 잠정적 개선을 했을 때 '국제화에의 대응'을 도모했지만 한반도 등과의 국제관계에 대한 내용이 여전히 희박한 점, ④ 일본열도의 북부(홋카이도)와 남부(오키나와)의 전시가 누락되어 있는 점, ⑤ 고정전시로 인해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하기 어렵고 주실과 부실을 기능적으로 구분해서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의 글, p.5

7) 藤尾慎一郎(2019)「1983年の開館以来のリニューアル歴年代にもとづく先史時代像の可視化その基本的な考え方と見どころとは!」『歴博』一般財団法人歴史民俗博物館振興会,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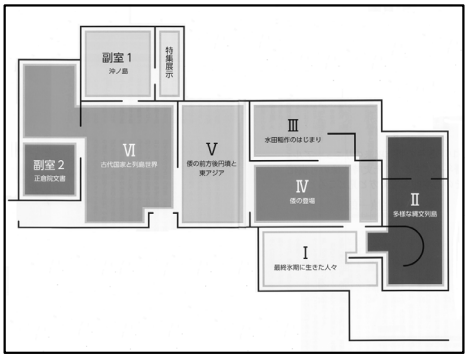
럼 리뉴얼 작업의 책임자는 고대 일본 실태에 접근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한반도 관련 전시를 개선하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시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편년으로 여러 구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제Ⅰ기의 제1전시실은 Ⅰ(일본문화의 여명[日本文化のあけぼの]), Ⅱ(벼와 왜인[稲と倭人]), Ⅲ(전방후원분의 시대[前方後円墳の時代]), Ⅳ(율령국가[律令国家]), Ⅴ(오키노시마[沖の島])의 다섯 가지 코너로 나누져 있었다.

제Ⅱ기 전시에는 전시범위를 확대하여[8] '구석기시대 테마'(코너를 테마로 개칭)와 시대 구분에 구애받지 않고 융통성 있게 전시할 수 있는 '부실'을 신설했다. 결국 Ⅰ(채집빙하기에 산 사람들[採集氷河期に生きた人々]), Ⅱ(다양한 조몬 열도[多様な縄文列島]), Ⅲ(수전도작의 시작[水田稲作のはじまり]), Ⅳ(왜의 등장[倭の登場]), Ⅴ(왜의 전방후원분과 동아시아[倭の前方後円墳と東アジア]), Ⅵ(고대국가와 열도 세계[古代国家と列島世界]), 부실1(오키노시마[沖の島]), 부실2(정창원 문고[正倉院 文庫])의 8 가지로 개편되었다. 제1전시실의 제Ⅰ기와 제Ⅱ기의 공간은 각각 <그림1> 및 <그림2>와 같다.



<그림1> 제Ⅰ기 제1전시실의 공간[9]



<그림2> 제Ⅱ기 제1전시실의 공간[10]

제1실의 제Ⅰ기와 제Ⅱ기의 전시내용의 대응관계는 <표2>와 같다.

8) 37,000년 전에 일본열도에 인류가 출현하고 나서 10세기에 중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까지의 약 36,000년간으로 확장했다.

9) 渋谷綾子(2014)「調査研究活動報告 国立歴史民俗博物館総合展示第1室(原始・古代)の新構築事業2012年度活動報告」『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186集, p.290

10) 藤尾慎一郎(2019)「1983年の開館以来のリニューアル歴年代にもとづく先史時代像の可視化その基本的な考え方と見どころとは!」『歴博』212, 一般財団法人歴史民俗博物館振興会, pp.2-3

<표2> 제Ⅰ기와 제Ⅱ기의 전시 내용 대조

기존의 시대구분	제Ⅰ기 전시	제Ⅱ기 전시
구석기시대		Ⅰ.채집빙하기에 산 사람들
조몬 시대	Ⅰ.일본문화의 여명	Ⅱ.다양한 조몬 열도
야요이 시대	Ⅱ.벼와 왜인	Ⅲ.수전도작의 시작
		Ⅳ.왜의 등장
고훈 시대	Ⅲ.전방후원분의 시대	Ⅴ.왜의 전방후원분과 동아시아
나라 시대	Ⅳ.율령국가	Ⅵ.고대국가와 열도 세계
지정하지 않음	Ⅴ.오키노시마	부실1.오키노시마
지정하지 않음		부실2.정창원 문고

그 중에서 분석대상은 일본인의 형성과 관련된 '야요이 시대'와 일본국가의 형성과 관련된 '고훈 시대'의 전시에 제한한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제Ⅰ기 전시에서는 Ⅱ(벼와 왜인)·Ⅲ(전방후원분의 시대)이었으나 제Ⅱ기 전시에서는 Ⅲ(수전도작의 시작)·Ⅳ(왜의 등장)·Ⅴ(왜의 전방후원분과 동아시아)이다.

Ⅲ·Ⅳ·Ⅴ테마의 전시책임자는 각 테마의 주안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야요이 시대의 전기에 해당되는 Ⅲ테마의 전시책임자는 '총합전시 제1실'의 전시책임자를 겸하고 있는데 후지오는 기존의 전시에서 지적된 조몬 시대와 야요이 시대의 지역 차이에 따른 혼란을 개선했다[11]고 한다.

야요이 시대 후기에 해당되는 Ⅳ는 새로 추가된 테마이다.[12] 여기에서는 1·2세기에 수립한 왜 왕권이 중국과 한반도와 '물건(もの)'을 통해 '연결(結びつき)'된 양상과 일본열도의 각 지역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가 구축된 양상을 전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3]

고훈 시대에 해당되는 Ⅴ테마에서는 전방후원분이 축조된 3세기에서 6세기까지의 왜 왕권의 역사를 고고자료를 통해 전시한다. 왜의 형성을 일본열도 내의 발전과정으로만 파악했던 기존의 시각을 탈피하여 동아시아와의 '교류' 속에서 파악했다고 한다. 이 전시의 배경에는 과거 30년, 한국과 중국의 고고학자와의 정보교환과 공동연구가 있다.[14]

위와 같이 Ⅲ·Ⅳ·Ⅴ테마 리뉴얼의 주안점에는 앞에서 제시한 기본이념의 '연구 성과의

11) 藤尾慎一郎(2019)「水田稲作の始まり」『歷博』212, 一般財団法人歷史民俗博物館振興会, pp.12-15
12) 야요이 시대의 기간이 두 배로 연장된 결과 기존의 야요이 시대의 기간만으로는 일괄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생각된다.
13) 上野祥史(2019)「テーマⅣ 倭の登場」『歷博』212, 一般財団法人歷史民俗博物館振興会, p.16
14) 松本武彦(2019)「テーマⅤ 倭の前方後円墳と東アジア」『歷博』212, 一般財団法人歷史民俗博物館振興会, p.20

반영'·'국제화의 대응', 기조테마의 '국제교류' 등이 반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한반도 도래인과의 관련성에서 보면, III테마는 야요이 시대의 새로운 연대관에 따른 야요이 상 정립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IV·V테마의 중점이 동아시아의 '물건'의 '교류'에 중점을 두고 '사람의 이동'에 대한 관심에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2 리뉴얼 작업의 인력

다음으로 리뉴얼 작업을 진행했던 인력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전시실의 리뉴얼 작업은 2011년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가서 이듬해 리뉴얼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작업의 마지막 단계인 2016년 4월 시점의 '제1실 리뉴얼 전시 프로젝트 위원'을 <표3>에 제시한다.

<표3> 제1실 리뉴얼 전시 프로젝트 위원[15](2016년 4월 시점)

<국립역사민속박물관 내부 위원>	
후지오 신이치로(藤尾慎一郎)	연구부 교수 전시책임자(고고학)
모쓰모토 다케히코(松木武彦)	연구부 교수 부전시책임자(고고학)
우에노(上野祥史)	연구부 준교수(고고학)
오구라 시게지(小倉慈司)	연구부 준교수(일본고대사)
구도 유이치로(工藤雄一郎)	연구부 준교수(고고학)
스즈키 타구지(鈴木卓治)	연구부 준교수(소프트웨어학, 색채·화상)
다카타 간타(高田貫太)	연구부 준교수(고고학)
니시타니 마사루(西谷大)	연구부 교수(생태환경사)
니토 아쓰시(仁藤敦史)	연구부 교수(일본고대사)
하야시베 히토시(林部均)	연구부 교수(고고학)
미카미 요시타카(三上喜孝)	연구부 준교수(일본고대사)
무라키 지로(村木二郎)	연구부 준교수(고고학)
야마다 야수히로(山田康弘)	연구부 교수(고고학)
시부타니 아야코(渋谷綾子)	연구부 특임조교 (문화재과학)
<외부 위원>	
오바타 히로키(小畑弘己)	구마모토대학(熊本大学) 문학부 교수(고고학)
가메다 슈이치(亀田修一)	오카야마이과대학(横浜国立大学) 총합정보학부 교수(고고학)
가와지리 아키오(川尻秋生)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学) 문학학술원 교수(일본고대사)
시타라 히로미(設楽博己)	도쿄대학(東京大学) 문학부 교수(고고학)
세구치 신지(瀬口眞司)	시가현(滋賀県) 문화재보호협회 기화조사과 부주간(고고학)

15) 渋谷綾子·上奈穂美(2017)「[調査研究活動報告] 国立歴史民俗博物館総合展示第1室原始古代の新構築事業 : 2015年度活動報告」『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206集, p.123

다니구치 야스히로(谷口康浩)	고쿠가쿠인대학(国学院) 대학원 문학연구과 교수(고고학)
쓰쓰미 다카시(堤 隆)	아사마(浅間) 조몬 뮤지엄 주임 학예원(고고학)
히시다 데쓰오(菱田哲郎)	교토부립대학(京都府立大学) 문학부 교수(고고학)
모리 기미유키(森公章)	도요대학(東洋大学) 문학부 교수(일본고대사)
요시다 히로시(吉田広)	아이치대학(愛知大学) 뮤지엄 준교수(고고학)
와카사 도루(若狭徹)	다카사키시(高崎市) 교육위원회 문화재보호과 계장(고고학)
와카바야시 구니히코(若林邦彦)	도시야대학(同志社大学) 역사자료관 준교수(고고학)

위와 같이 구성원의 전공을 보면 26명 중 18명이 고고학 전공자로서 지나치게 고고학자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구성원은 소프트웨어학 · 생태환경사 · 문화재과학과 같은 기술적 측면을 담당하는 연구자와 5명의 문헌사학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인력 구성에서 특필할 만한 것은 도래인 연구에 결정적 열쇠를 지니고 있는 체질인류학자가 한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문화가 공간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확인되었을 때 그 계기를 '민족이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16] '문화전파'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전자는 집단과 함께 '문화요소'들이 이동하여 문화 속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하며 후자는 문화요소들이 발생모체의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양자는 개념상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17]. 그 애매함은 자칫하면 연구자들의 자의적 해석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고고학자와 체질인류학자는 고고유적에서 함께 연구할 수도 있지만 민족이동에 대한 판별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서 판가름 난다. 고고학자는 유물의 이동이나 전파를 통해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비해 체질인류학자는 사람의 이동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 판단한다. 따라서 도래인의 옛 터전이나 규모 등의 결정적 판단은 체질인류학자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구성원을 볼 때 한반도 도래인에 관한 설득력 있는 전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5명의 문헌사학자 중에서 오구라 시게지(小倉慈司, 1967~), 미카미 요시타카(三上喜孝, 1969~), 모리 기미유키(森公章, 1958~)는 도쿄대학 학위, 니토 아쓰시(仁藤敦史, 1960~), 가와지리 아키오(川尻秋生, 1961~)는 와세다대학 학위의 취득자로, 특정한 학통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특필할 만하다. 외국인이 보았을 때 '일본학계'가 모두 같은 패러다임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학통 별로 미묘한 차이가 있으며 학설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역사해석에서 학문적 계보는 무시할 수 없는

16) 전파가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교류'라고도 할 수 있다.
17) 大林太良(1994)「民族移動」石川栄吉外編『文化人類学事典』弘文堂, p.751

중요한 계기임에 틀림없다.

2.3 리뉴얼 작업의 토대연구

기본이념에서 본 것처럼 '연구 성과의 반영'은 리뉴얼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다. 제1실 리뉴얼의 주요 목적은 ① 대학공동이용기관으로서 첨단적인 역사연구를 추진하여 그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 ② 고고학의 발전에 따른 역사관의 극적 변화에 대응한다, ③ 박물관형 연구통합의 실천을 실시한다, 의 3항목[18]으로 연구 성과의 반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Ⅱ기 전시에 반영된 주된 연구 성과(1997년 이후)는 <표4>과 같다.[19]

<표4> 제Ⅱ기 전시 제1실 리뉴얼에 반영된 토대연구

<공동연구> **(1) 새 연대관에 관한 공동연구** 기반연구「조몽시대의 고정도 편년연구」1997~1999연도 기반연구「고정도 연대측정법의 활용에 의한 역사자료의 총합연구」2003~2005연도 기반연구「역사자료연구에서의 연대측정의 활용법에 관한 총합연구」2006~2008연도 기반연구「역사·고고자료연구에서의 고정도연대론」2009~2011연도 **(2)구석기·조몬·야요이 시대에 관한 공동연구** 기간연구「구석기시대의 환경변동과 인간생활」2009~2011연도 기간연구「농경사회의 성립과 전개—야요이 시대상의 재구축—」2009~2011연도 기간연구「선사시대의 사회복잡화·지역다양화의 연구」2012~2014연도 기반연구「조몬·야요이 집락유적의 집성적 연구」	기간연구「『삼국지』위서 동이전의 국제환경」2005~2007연도 기간연구「고대의 생산권력과 이데올로기」2005~2007연도 기간연구「교류와 문화변용에 관한 사적 연구」인간문화연구기구 제휴연구2005~2009연도 기간연구「새로운 고대상 수립을 위한 총합적연구」2009~2011연도 기간연구「古代의 문자문화형성과정의 총합적 연구」2010~2012연도 기간연구「동아시아의 왜 세계의 실태」2010~2012연도 기간연구「고대지역사회의 실상」2012~2014연도 기반연구「건축과 도시의 아시아비교문화사」2009~2011연도 기반연구「고대일본과 고대조선의 문자문화에 관한 기반적 연구」국제공동연구2009~2012연도

18) 藤尾慎一郎(2012)「総合展示第1室新構築について」「第1回展示プロジェクト委員会資料」大学共同利用法人人間文化研究機構国立歴史民俗博物館, p.5

19) 大学共同利用機関法人人間文化研究機構国立歴史民俗博物館(2013)「平成26年度概算要求にかかる運営上の諸課題等」大学共同利用機関法人人間文化研究機構国立歴史民俗博物館 編, 大学共同利用機関法人人間文化研究機構国立歴史民俗博物館, p.46

2005~2007연도 개별공동연구「에히메현 가미구로이와(上黒岩) 유적의연구」2007~2009연도 개별공동연구「동아시아 선사시대의 정주화 과정의 연구」2007~2009연도 개발형 공동연구「조몬시대의 사람과 식물의 관계사」2010~2012연도 **(3) 고훈 시대 · 고대에 관한 공동연구** 기간연구「6세기 묘제에 볼 수 있는 왜의 대외교류와 문화변용의 비교」2005~2007연도	개별공동연구「율령국가전환기의 왕권과 도시」2002~2004연도 준비연구「고대의 문자문화의 형성과정의 기초적 연구」2008~2009연도 「총합전시제1실 신구축을 위한 준비연구」2011연도 「정창원 문서의 고도정보화연구」인간문화연구기구 제휴연구2010~2014연도 **(4) 환경사 · 생활사에 관한 공동연구** 「동아시아의 다양한 자연이용—수전농경민과 화전농경민—」2004~2006연도

위의 연구 중 야요이 시대의 한반도 도래인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농경사회의 성립과 전개 -야요이 장기 편년 하의 새로운 야요이 상(像)-」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리뉴얼 작업의 전시책임자인 후지오가 책임자로서 추진했던 연구인만큼 핵심적 토대 연구라 할 수 있는데 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이 10년 전부터 추진해온 AMS-탄소14 연대측정법에 의해 얻어진 실제연대는 야요이 시대의 통설 · 정설에 상당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 정설보다 500년 앞서 수전도작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야요이 전기·중기를 중심으로 존속 폭이 늘어난 결과, 야요이 시대는 약 1200년 계속된 것이 밝혀졌다. (중략) 천천히 진행한 야요이 문화 상(像)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20]

위와 같이 이 연구는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이 추진해온 새로운 연대측정법에 따른 새로운 야요이 상(像)을 구상하려는 것이다. 즉 야요이 시대가 500년 거슬러 올라간 결과 시대 별 양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이루어진 연구이다. 아래는 하위 연구 주제이다.

> ① 기존의 야요이 시대의 연대관에 근거한 한국의 무문토기시대의 연대 재검토와 그 파급에 관하여. ② 수전도작이 시작된 후 600년 지나야 보급되는 철기. 석기시대가 600년간 지속된 뒤 철기시대에 들어간다. 철의 보급을 전제로 한 야요이 사회 발전 도식의 재검토. ③ 식량 확보 및 생산. 벼농사 중심 역사관과 전작과의 혼합 사관 ④ 야요이 시대의 존속 기간이 두배가 되어도 유적과 유구의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시기 당 인구는 줄어든다. 인구가 준 야요이 사회상(社會像)의 재구성. ⑤ 기원전 8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 야요이 청동기의 기원과 의례·권력. ⑥ 혼슈 시코쿠 규슈 등 일본열도 내 지역의 조몬 문화와 야요이 문화의 700년에 걸친 문화공존의 의미와 세계사적

20) https://www.rekihaku.ac.jp/research/list/joint/2009/noukou.html(검색일: 2019.10.1)

자리매김. ⑦ 야요이 문화의 주변. 기원전4세기 ~기원전1세기 의 불과 300년 밖에 수전도작을 실시하지 않았던도호쿠(東北) 북부의 문화적 위상. ⑧ 낙랑군의 설치에 따른 중원 문화와의 접촉이 왜인 사회에 미친 것.[21]

위와 같이 한국무문토기문화의 연대 재검토 · 철기 · 청동기 · 수전도작과 전작(田作)의 혼합 · 야요이 사회의 사회상 · 조몬문화와 야요이 문화의 병존 · 중원문화와의 접촉 등이 주제가 되고 있다. 일련의 연구 주제에서 한반도 도래인의 민족이동에 관한 것은 찾을 수 없다. 결국 이 연구는 야요이 시대의 재구성에 목적이 있지만 고대한일관계를 문화 전파 차원으로 해석하는 고고학계의 기존 패러다임을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도래인을 재조명하는 계기는 없다.

다음으로 「『삼국지』위서 동이전의 국제환경」을 들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삼국지』위서 동이전 (『三国志』魏書巻三十烏桓鮮卑東夷伝)에 기술된 3세기를 전후 시기의 동이 국가 (고구려·부여·옥저·루·한·왜의 국가들·민족들) 및 위(魏)를 종합적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지방, 한반도의 고고학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시기의 왜와 왜인을 둘러싼 국제환경을 밝혀 그 역사를 동북아시아 민족들의 역사속에서 자리매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22]

위와 같이 이 연구는 최근의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토대로 『삼국지』동의전에 나와 있는 동이족들과 왜와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연구로, 야요이 시대 말기의 양상을 규명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하위 연구는 「삼국기(三国期) 단계에서의 오환·선비에 대하여 」,「고고유적·유물에서 본 요동군(遼東郡)」, 「고고학에서 본 부여와 옥저」,「읍루(挹婁)의 고고학」,「낙랑·대방군 전실묘(塼室墓)의 재검토」,「삼한과 왜의 교류」「야요이 시대의 왜·한 교섭」「히미코(卑弥呼)의 왕권과 조공」[23]이다.

그 중에서 한반도 도래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삼한과 왜의 교류」·「야요이 시대의 왜·한 교섭」이지만 '교류'나 '교섭'에 목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 고고학 연구를 답습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고훈 시대의 한반도 도래인에 관련된 연구로서 우선 「6세기 묘제에서 보는 왜의

21) 위와 같음.

22) https://www.rekihaku.ac.jp/research/list/joint/2005/sangokusi.html(검색일: 2019.10.1)

23) 東潮 編(2009)『「三国志」魏書東夷伝の国際環境』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51集 国立歴史民俗博物館.

대외교류와 문화변용의 비교」를 들 수 있는데 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최근에 한국 남서부에서 조사가 진행된 전방후원분의 존재는 영주를 결심한 사람들이 일본열도에서 이주한 것을 상기시킨다. 한편 일본열도에는 해외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영향을 준 유구(遺構)나 유물도 다수 존재 하며 그 교류가 6세기 일본열도의 문화변화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연구는 일본열도와 한반도 땅에서 사람들의 출신을 나타내는 전통적 묘제를 대상으로 상호이주 실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24]

이와 같이 이 연구는 묘제를 통해 일본열도에서 한반도로,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의 상호 민족이동의 실태를 검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이주한 사람들의 실태를 규명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의 왜 세계의 실태」도 한반도 도래인과 관련된 연구인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왜 세계를 중앙(왕권)과 지역(지역사회)의 관계가 규정하는 세계로 파악하여 일본열도적 관점과 동아시아적 관점(내적 시점과 회적 시점)을 대조함으로써 이 왜 세계의 실태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이 연구에서는 도래계 집단을 받아들인 지역 등을 대상으로 동아시아 여러 지역과 왕권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왜 세계를 구성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을 정리한다.[25]

위와 같이 이 연구는 왜 왕권의 질서를 '일본열도'와 '동아시아'라는 두 가지의 시점에 입각해서 왜 왕권의 실태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연구내용에 한반도 도래 집단을 수용한 지역의 동태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 연구가 어떤 전시로 이루어질지 기대된다.

이상 리뉴얼 작업의 토대로서의 '방침'·'인력'·'토대연구'에 대하여 개관했는데 일관된 시각이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리뉴얼에서는 국제화에 중점을 두고 동아시아라는 시야로 한반도에 대해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증적 전시라는 관점에서 전시책임자인 후지오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왔던 야요이 시대의 새로운 연대측정법을 전면에 내세워 아시아에 정착시키려는 의욕을 느끼는 전시가 되고 있다.

---

24) https://www.rekihaku.ac.jp/research/list/joint/2005/bosei.html(검색일: 2019.10.1)
25) https://www.rekihaku.ac.jp/research/list/joint/2012/eastasia.html(검색일: 2019.10.1)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문화전파를 인정하되 한반도 도래인의 위상을 낮추는 고고학의 기본적 연구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침이나 연구 성과가 전시에 반영되었다 할지라도 한반도 도래인에 대한 전시 내용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 이하에 구체적 전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야요이 시대의 한반도 도래인

3.1 정보전시의 내용

제Ⅱ기의 야요이 시대의 전시는 Ⅲ(수전도작의 시작) 및 Ⅳ(왜의 등장) 테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Ⅰ기 전시에 비하면 한반도에 관한 내용 자체는 늘었다. '한반도' 및 '도래인'과 관련된 정보전시를 발췌하여 연대순으로 열거하면 <표5>와 같다.

<표5> 제Ⅱ기 전시 야요이 시대 한반도 도래인 관련 정보전시

	제 목	내 용
①	**수도도작의 시작**	기원전 10세기경 규슈 북부에서 수전 도작이 시작되었다. 도작은 천천히 각지에 확산하여 일본열도에서는 수전도작을 수용한 지역과 수용하지 않는 북과 남의 지역으로 크게 분리되었다. 기원전 4세기, 규슈 북부의 사람들은 한반도 남부에 청동기나 철기 원료를 찾아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다. 중국·한반도와의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다.
②	**한반도의 농경사회화와 일본열도**	한반도 남부에서는 기원전 15세기경부터 본격적 전작(田作)이, 기원전 11세기에는 수전도작(水田稲作)이 시작되고 랴오닝식(遼寧式) 동검을 상징으로 하는 청동기문화가 꽃핀다. 기원전 10세기 후반 경, 규슈 북부에 가져오게 된 것은 수전도작을 생산기반으로 하는 청동기문화다.
③	**수전 도작의 확산(동영상)**	기원전 12세기 한반도에는 청동기가 출현하고 기원전 11세기에는 수전 벼농사가 시작된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다. 거기에는 야요이 문화의 기원을 많이 볼 수 있다. 기원전 10세기 후반 드디어 한반도에서 북 큐슈로 수전 도작이 전해진다. (중략) 기원전 4세기. 규슈 북부에는 중국제 철기가 들어와 청동기도 사용하게 되며 왕묘도 만들어졌다. 벼와 철로 대표되는 야요이 문화는 여기서 시작했다.(중략) 기원전 3세기. 야요이인은 철기 소재를 찾아 조선해협을 건너 소재를 가지고 와서 철기를 만들었다.

④	**조몬 만기의 서일본**	기원전13세기~기원전 11세기. 기원전 11세기에 한반도의 돌류문 (突瘤文)· 공열문(孔列文) 전작문화가 주고쿠 지방(中国地方)에서 규슈 동북부에 걸쳐 전해졌다. 방추형돌칼살·조기장 등이 전해지고 재배되어 있었던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으나 채집수렵사회를 전환시킬 수는 없었다.
⑤	**한반도를 건너다**	기원전 10세기 후반. 농경사회가 성립되면서 집단의 재편성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새로운 땅을 찾아 한반도를 건넌 사람들이 나타났다. 경상도 낙동강 하류 지역 이외에도 지석묘의 분포로 미루어보아 전라도 등 한반도 서남부 사람들도 건넜을 가능성이 있다.
⑥	**최고(最古)의 부장품을 가진 묘**	기원전 9세기. 수전 도작이 시작되고 나서 100년 정도 지나자 부장품이 수반되는 무덤이 나타난다. 단도마연호(丹塗磨硏壷)·마제석기·마제석족의 세트는 기원전 11세기부터 영남 지방에 볼 수 있었던 것과 같기 때문에 조선 해협을 끼고 같은 풍습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⑦	**최고(最古)의 청동기**	기원전 8세기말(야요이 전기 전엽). 랴오닝식 동검의 파편을 전용해서 칼을 만들어 화살촉으로서 재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전용품은 충남 송국리 유적에서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양식이 공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⑧	**일본열도의 철기문화**	일본열도의 철기는 기원전 4세기 초에 규슈 북부에 출현했다. 녹은 철을 주형에 흘려 넣어 만든 중국 동북부에서 만들어진 주조 철기이다. 한편 철을 두드려 단련한 단조 철기는 기원전 3세기에 규슈 북부에 출현하고 이후 주류가 된다.
⑨	**금속기 출현**	기원전 4세기 중엽까지 규슈 북부의 사람들은 석기만 사용하는 단계로부터 철기와 청동기라고 하는 금속기를 사용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동시에 철기 소재를 찾아 한반도를 건너 한반도 초기철기사회와의 교류를 시작한다.
⑩	**철을 구한 왜인**	한반도 동남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기원전 4세기경부터 규슈 북부의 야요이계 토기가 출토되기 시작한다. 대장일 관련 유적과 철광석 채굴갱이 있는 유적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왜인이 철 소재 등을 구하러 바다를 건넜을 가능성이 있다.
⑪	**도래인의 무덤**	기원전 6세기~기원전 1세기. 도이가하마(土井ヶ浜) 유적. 사구(砂丘) 위에 축조된 집단 묘지. 조몬인보다 높은 신장을 가진 사람들이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래인의 무덤으로 생각되고 있다.
⑫	**지석묘**	기원전8~기원전 4세기. 한반도 남부계의 묘로, 1m 사방(四方)의 탁상 평석을 탁자의 다리 형태의 돌로 지탱하는 묘이다. 후쿠오카 서부,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에 한하여 분포되어 있다.
⑬	**왜의 등장**	기원전 1세기경에 왜인이 한(漢) 왕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세계에 등장했다. 새로운 대외교섭이 시작되는 1·2세기의 야요이 시대 후기에는 왜인 세계도 크게 변화되었다. 지역의 통합이 보다 명확해져 지역을 넘는 교류도 왕성해졌다.

⑭	**남북 시적 (南北市糴) 세계 –이키(壱岐) · 쓰시마(対馬)-**	해협을 사이를 둔 왜와 한을 연결시킨 것은 해상을 남북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었다. 교역을 중계한 쓰시마와 이키는 한(漢)과 한(韓), 왜가 뒤섞이는 국제색이 풍부한 섬이며 일본열도에서는 볼 수 없는 진귀한 물건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⑮	**늑도의 세계**	왜와 한이 교류하는 장소가 한반도의 늑도에 있었다. 여기에서는 삼한의 토기와 야요이계 토기가 출토하고 있다. 기원 1세기의 교역의 거점은 늑도로부터 이키하라(壱岐原)의 쓰지(辻)로 이동해 간다.
⑯	**대마도의 세계**	쓰시마는 경작이 가능한 평지가 적고 남북의 교역을 짊어지는 것을 생업으로 한 세계였다. 유적의 대부분은 해안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교역을 짊어지는 어부의 집단 무덤에는 한(漢)·한(韓)·왜(倭)의 특색이 혼재했다.
⑰	**왜 · 한의 금속기 교착(交錯)**	동물의 조형이나 뿔 모양, 십자형의 장식을 가지는 검은 삼한에 유래되는 물건이며 왜 거울이나 동검은 왜에서 유래되는 물건이다. 왜와 한을 잇는 쓰시마에서는 두 가지의 가치가 교착했다.
⑱	**1 · 2세기의 동아시아**	한(漢)제국은 한반도 북부에 낙랑군이라는 지배 거점을 설치했다. 기원전 1세기에는 한제국과 동방 여러 민족과의 교섭이 시작된다. 일본열도는 한반도를 통해 새로운 문물이나 기술·정보를 받아들였다.
⑲	**한반도의 세계 -낙랑과 삼한-**	한반도에는 북쪽에 한(漢)의 낙랑군이 있어 남쪽에는 삼한이라고 하는 여러 집단(諸集団)이 존재했다. 낙랑군은 동방의 여러 민족의 교류·교역의 중심이었으며 왜와도 왕래했다. 문화가 다른 마한·변한·진한은 낙랑군이나 왜와의 교섭을 통해 사회의 결합을 강화해 간다.

위에서 제시한 전시내용은 대부분 고고학 성과에 의한 것이다. ⑭ [남북 시적(南北市糴)[26] 세계 - 오키 · 쓰시마-], ⑯ [대마도의 세계], ⑰ [왜 · 한의 금속기 교착(交錯)], ⑱ [1 · 2세기의 동아시아], ⑲ [한반도의 세계-낙랑과 삼한-]은 토대연구「『삼국지』위서 동이전의 국제환경」와 관련된 것으로 문헌사학과 고고학의 융합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제Ⅰ기 전시에 전시되었던 체질인류학의 한반도 도래인에 관한 내용[27]이 축소되면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⑪ [도래인의 무덤]에서는 도리가하마 인골에 대해 "조몬인보다 높은 신장을 가진 사람들이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래인의 무덤으로 생각되고 있다."며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다. "생각되고 있다"라는 소극적 표현은 직접 연구하지 않고 제Ⅰ기 전시[28]를 답습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⑪을 삭제하

26) 3세기의『三國志』魏書 烏桓鮮卑 東夷傳에는 대방군에서 연한 항로를 따라 한지를 이동해서 한에서 왜로 바다를 건너 대마도이기(壱岐[一支])를 거쳐 末盧, 伊都, 奴에 이른다는 기록이 있다. 바다를 왕래한 쓰시마나 이기 사람들이 한일을 연결했으며 그 활동을 3세기 중국 사람들이 '남북 시적'으로 표현했다. 남북으로 왕래한다는 뜻이다. 上野祥史, 앞의 글, p.17

27) 세키네 히데유키, 앞의 글, pp.246

28) 위의 글, p.246

지 않았던 점에 필자는 큰 의미를 둔다. 그것은 도이가하마(土井ヶ浜) 유적의 도래인 연구로 '도래 · 혼혈설'[29]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가나세키 다케오(金関丈夫, 1897~1983)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기도 하고 체질인류학자를 공동연구자로서 참여시키지 않았던 것에 대한 속죄와 같은 마음[30]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역시 고고학자의 뇌리에도 도래인 문제를 소홀이 할 수 없다는 인식과 살아 있는 증좌로 이해하고자 한다.

3.2 한반도 도래인의 위상

사실 한반도 도래인의 이주에 관해 명확히 언명하고 있는 전시는 ⑤ [한반도를 건너다]와 ⑪ [도래인의 무덤] 뿐이다. 전자는 새로운 땅을 찾아 한반도를 건넌 사람들의 '옛 터전'으로 낙동강 하류와 전라도를 지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에 대해 "기원전 10세기 후반"으로 명기되어 있는 부분이다. 자칫하면 야요이 시대의 한반도 도래인의 민족이동이 이 시기에 단 한번만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소위 '도래계 야요이인'이 모두 기원전 10세기에 도래한 한반도 사람의 후손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후자는 기원전 6세기~기원전 1세기의 도이가하마 무덤의 주인이 한반도 도래인이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들과 기원전 10세기 후반에 한반도에서 온 도래인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그리고 그들과 기타 지역의 야요이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이 석연치 않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⑪은 특별한 배경으로 전시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전시의 맥락상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모든 전시가 고고학의 패러다임으로 전시되고 있는데 이 ⑪만은 체질인류학의 패러다임으로 전시되고 있는 것이다. 후지오를 비롯한 전시자는 양자를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래 규모'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도래인의 기술이 위의 두 군데 밖에 없고 ⑤의 "농경사회가 성립되면서 집단의 재편성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새로운 땅을 찾아 한반도를 건넌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구절에서 대규모로 생각하기 어렵다.

---

29) 한반도 도래인에는 두 가지 계통이 존재한다. 하나는 조몬 시대 만기(晩期)에 도래하여 북부 규슈 및 야마구치[山口] 지방에 정착하여 조몬인과 혼혈했으나 뒤를 이어온 후속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조몬사회에 흡수되었다. 다른 하나는 북부 규슈를 지나 긴키 지방[近畿地方]에 이르는 강한 이주세력을 가지고 그것이 고분시대 후까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긴키 지방 사람들의 체질을 변형시켰다. 金関丈夫(1976)『日本民族の起源』法政大学出版局, pp.29-46, 98-114, 초출「弥生人種の問題」(1955),「弥生時代人」(1962)

30) 이와 관련해서 '총합전시 제1실'에는 도이가하마 인골에서 복원한 3세기의 야요이 여성을 조몬인과의 대조하면서 제시하고 있지만 한반도 도래인과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다.

도래인 연구의 전문가였던 고고학자 다나카 요시유키(田中良之, 1954~2015)는 소수의 도래인 집단이 혼인관계를 통해 조몬사회에 정착했다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열도 각지에 확산했다고 보았다.[31] 즉 한반도에서 직접 일본 각지에 이주한 것이 아니라 규슈에서 번식한 다음 일본열도에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고고학자 사이에 정설로 자리 잡고 있는데[32] 이 박물관 전시도 이 패러다임에 따라 구성했다는 생각이 든다. 즉 기원전 10세기 후반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반도 도래인이 규슈에 도래하며 거기에 번식한 후 일본 각지에 천천히 이주했다는 도식이다. 한 마디로 그들은 일본의 필그림 파더스(pilgrim fathers)가 된 셈이다.

⑤·⑪ 이외의 전시에는 문화 전파와 교류에 관한 내용뿐이다. ① [수도도작의 시작], ② [한반도의 농경사회화와 일본열도], ③ [수전 도작의 확산(동영상)], ④ [조몬 만기의 서일본], ⑥ [최고(最古)의 부장품을 가진 묘], ⑦ [최고(最古)의 청동기], ⑧ [일본열도의 철기문화], ⑨ [금속기 출현], ⑫ [지석묘]는, 도작문화·청동기·철기·묘제와 같은 야요이 문화의 전파에 관한 내용이며 ⑱ [1·2세기의 동아시아]는 낙랑군의 문물·기술·정보의 일본전파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⑬ [왜의 등장], ⑭, ⑮ [늑도의 세계], ⑯ [대마도의 세계], ⑰ [왜·한의 금속기 교착(交錯)], ⑲ [한반도의 세계 -낙랑과 삼한-]은 교역을 통한 쌍방향 교류에 관한 내용이다.

야요이 시대의 토대연구 「농경사회의 성립과 전개」·「『삼국지』위서 동이전의 국제환경」는 '교류'나 '교섭'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고고학 연구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도래인의 '역할'에 관해서는 한반도 문화 전파의 '매개체'로서 역할만 인식되어 있을 뿐이다.

이상 제Ⅰ기 전시에 비하면 한반도 도래인의 민족이동에 관한 내용이 대폭 줄고 '문화전파'에 관한 내용이 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Ⅰ기 전시에 한반도 도래인에 관한 내용이 많았던 것은 가나세키 설을 자세히 소개했기 때문이며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제Ⅰ기도 제Ⅱ기와 대동소이라 생각된다. 다만 쌍방향 상호교류가 늘어났다는 점이 제Ⅱ기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히려 한반도 도래인이 아닌, 다른 집단의 '민족이동'이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①·⑨·⑩ [철을 구한 왜인]에서는 철의 원료 조달을 위해 한반도로 이동한 왜인이

31) 田中良之(2014)「いわゆる渡来説の成立過程と渡来の実像」, 古代学協会編,『列島初期稲作の担い手は誰か』すいれん舎, pp.34-40

32) 필자는 일본고고학의 이러한 시각을 민족주의에 기인한 '출생지주의'로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국적취득의 기준으로 '혈통주의'와 '출생주의'가 있는데 도래인의 형질(유전자)을 지니고 있는 야요이인, 즉 '도래계 야요이인'을 출생지주의 시각으로 본다면 일본인이 될 것이고 혈통주의의 시각으로 본다면 한국인이 되어버린다. 고고학자들에게는 '출생주의'에 입각해서 도래계 야요이인의 정체성을 일본인으로 인식하려는 인식이 있는 듯하다. 세키네 히데유키(2016) 「일본 고고학자의 한반도 도래인 인식 –일본 인류학자와의 대조를 통해서-」『東아시아 古代學』第42輯, 東아시아古代學會, pp.256-257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⑬⑭⑯은 교역을 위해 한반도나 중국으로 진출한 왜인에 관한 내용이다. 나아가 ⑲에서는 왜에 건너간 낙랑군 사람들에 대한 언급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 도래인 대신, 한반도로 건너간 왜인, 동아시아에서 자유롭게 교역을 하는 왜인, 낙랑군에서 왜로 도래한 사람들의 민족이동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까지 덜 공론화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조명한다는 차원에서 이의가 인정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민족이동을 등한시하면서 한반도로 이동한 왜인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한반도 도래인의 존재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4. 고훈 시대의 한반도 도래인

4.1 정보전시의 내용

제Ⅱ기 전시에서 고훈 시대는 Ⅴ(왜의 전방후원분과 동아시아) 테마에서 전시되고 있는데 한반도 도래인과 관련 정보전시는 <표6>와 같다.

<표6> 제Ⅱ기 고훈 시대 한반도 도래인 전시 내용

	제목	내용
①	**시대를 바꾸는 새기술**	5세기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각지의 왕은 바다를 건너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요업(도자기) 금속가공, 말의 사육 등의 산업을 진흥했다. 그것도 거대고분을 조축 하는 힘의 근원이었다.
②	**5세기의 생활양식**	5세기는 일본열도 각지에서 한반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부뚜막이 있는 주거나 식재료를 '찌는' 조리 방법, 고배(高杯)나 항아리를 포함하는 그릇의 조합 등, 새로운 생활양식이 시작되었다.
③	**말의 사육**	일본열도에서 말을 본격적으로 이용했던 것은 5세기부터다. 도래계의 사람들이 가져다준 말의 사육이나 이용 기술은 왕권의 바로 밑에 있는 긴키(近畿) 지방 중앙부에서 각지로 전해지고 이동이나 운반의 수단으로써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④	**왜계 고분의 특색**	5세기 전반에는 북부 규슈계(九州系)수혈식 석실이나 상자식 석관(箱式石棺)이 매장 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왜의 갑주나 거울을 부장했다. 백제의 관을 부장한 예도 있다. 6세기 전반에는, 규슈계의 횡혈식 석실을 매장시설로서 왜·백제·가야나 현지의 문물을 부장했다.

⑤	**한반도의 왜계 고분**	한반도의 각지에는 왜와의 활발한 교류를 나타내는 '왜계(倭系) 고분'이 축조되었다. 왜의 여러 물품을 부장하는 고분이나 왜인을 매장하는 무덤, 왜의 독특한 무덤인 전방후원분 등이 있다. 왜인은 활발히 바다를 건너 현지의 사람들과 깊은 교류를 하고 있었다.
⑥	**영산강 유역과 왜**	6세기 전반까지의 영산강 유역은 백제와는 다른 사회였다. 복수의 옹관이나 횡혈식 석실을 가지는 방대형고분(方台形古墳)은 이 지역에 예부터 있었다. 한편 왜와의 깊은 교류관계를 맺고 왜에서 하니와(埴輪, 토용)를 분구(墳丘)에 한 줄로 늘어놓는 양식이나 전방후원형 분구를 도입했다.

위와 같이 제Ⅱ기 전시의 고훈 시대 한반도 도래인에 관한 기술은 제Ⅰ기 전시[33]와 마찬가지로 야요이 시대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취약한데다가 극단적으로 고고학의 연구 성과에 편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2 한반도 도래인의 위상

실질적으로 한반도 도래인에 관한 언급은 유일하게 ② [5세기의 생활양식]의 "5세기는 일본열도 각지에서 한반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부뚜막이 있는 주거나 식재료를 '찌는' 조리 방법, 고배(高杯)나 항아리를 포함하는 그릇의 조합 등, 새로운 생활양식이 시작되었다." 이외에는 없다. 그것도 한반도 도래인이 주체적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왜의 지역세력이 수용했다는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전시는 토대연구(「동아시아의 왜 세계의 실태」)의 연구목적 중 "한반도 도래 집단을 수용한 지역의 동태를 정리하는 것"에 부합되는 내용이라 생각되는데 '지역의 동태 정리'라는 것이 바로 왜인이 도래인을 수용했다는 형식의 정리인 것 같다.

도래인의 '옛 터전'에 관해서는 ②에 한반도로 명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① [시대를 바꾸는 새 기술]에는 "각지의 왕은 바다를 건너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라는 언급이나 ③ [말 사육]에는 "도래계의 사람들이 가져다준 말의 사육이나 이용 기술은 (중략)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언급이 있지만 도래인의 '옛 터전'을 한반도로 명기하지 않았다.

문화전파의 기원에 관한 것으로 ④ [왜계 고분의 특색]에는 "백제의 관을 부장한 예가 있다"와 "북부 규슈계(九州系)의 횡혈식 석실을 매장시설로서 왜・백제・가야나 현지의 문물을 부장했다"는 언급이 있다. 이들에서 고훈 시대의 도래문화의 기원이 가야와 백제에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도래인의 이주가 등한시되어 있는 점이 아쉽다.

33) 세키네 히데유키, 앞의 글, pp.248-249

이처럼 도래인의 옛 터전으로 한반도를 밝힌 경우보다 애매하게 표현하거나 문화전파의 기원으로서만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도래인의 옛 터전이 반드시 한반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지만 한반도에 대한 부당한 과소평가는 수긍할 수 없다.

옛 터전에 대한 언급이 인색한 상황에서 도래 '규모'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① ~ ⑥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도래인이 이주에 관한 언급이 미미하고 왜의 정치세력이 주체적으로 수용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대규모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래인의 역할'에 관한 기술로서 ①의 "바다를 건너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요업(도자기) 금속가공, 말의 사육 등의 산업을 진흥했다", ③의 "도래계의 사람들이 가져다준 말의 사육이나 이용 기술은 왕권의 바로 밑에 있는 긴키(近畿) 지방 중앙부에서 각지로 전해지고 이동이나 운반의 수단으로써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②의 "한반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중략) 새로운 생활양식이 시작되었다"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언급에서 도래인의 역할은 산업 관련 기술이나 의식주 관련 문화나 생활양식을 전파하는 '매개체'에 제한되며 정치와 관련이 있는 역할은 없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점은 제Ⅰ기 전시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④ [왜계 고분의 특색]의 "백제의 관을 부장한 예도 있다", "규슈계의 횡혈식 석실을 매장시설로서 왜 · 백제 · 가야나 현지의 문물을 부장했다"와 같은 말이 있다. 부장품은 단순한 공예품이나 미술품이 아니라 정치와 관련된 위신재(威信財: 통치자의 위상을 나타내는 물건)을)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야와 백제와는 정치적 관련성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시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오히려 한반도 내 왜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⑤ [한반도의 왜계 고분]의 "왜인은 활발히 바다를 건너 현지의 사람들과 깊은 교류를 하고 있었다.", ⑥ [영산강 유역과 왜]의 "한편 왜와의 깊은 교류관계를 맺고 왜에서 하니와(埴輪, 토용)를 분구(墳丘)에 한 줄로 늘어놓는 양식이나 전방후원형 분구를 도입했다."는 언급이 바로 그것이다. 한반도와의 교류를 통해 현지에 전방후원분을 만든 왜인의 정치적 활동이 인상 깊게 부각되어 있다.

토대연구 「6세기 묘제에서 보는 왜의 대외교류와 문화변용의 비교」에서는 연구 목적을 "사람들의 출신을 나타내는 전통적 묘제를 대상으로 상호이주 실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라고 했으나 과연 공평한 전시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이 전시도 야요이 시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국 한반도 도래인의 존재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고훈 시대의 한반도 도래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 국립역사민속

박물관 교수이자 제1실 리뉴얼 전시 프로젝트 위원인 다카타 간타(高田貫太, 1975~)는 이렇게 말한다. 일본 고고학은 고훈 시대를 고대국가 형성기로 삼아 왜 왕권이 지역을 통합하여 중앙집권화 하는 과정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그 때 문헌사학의 성과에 의존하고 있다.[34] 즉 고고학의 고훈 시대 연구의 문제점의 상당 부분은 문헌사학의 역사관에 유래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도식으로 고훈 시대를 해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한반도 도래인의 위상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왜 왕권의 통합과정에 저촉하는 대규모 도래나 도래인의 정치적 활동은 수용되지 않을 것이다.

5. 맺음말

이 글은 최근 리뉴얼 작업을 마친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한반도 도래인 전시를 통해 학계의 인식문제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번 리뉴얼의 전체 방침의 핵심은 실증성이 높은 전시와 일본사를 세계사 속에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국제화로 요약할 수 있다. 하위의 고대 전시실의 방침의 핵심은 새로운 연대측정법에 따른 야요이 시대의 재구성과 고훈 시대 왜의 동아시아 교류의 규명으로 요약된다.

리뉴얼 작업에 참여한 인력은 고고학 전공자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거기에 일부 특정한 학통에 한정된 문헌사학자에 의해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었다. 또한 도래인 연구에 결정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질인류학자가 한명도 참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리뉴얼 작업의 토대가 된 연구로서는 '새로운 연대 측정법에 따른 야요이 시대의 재구성', '동이족과 왜의 관계에 대한 고고학적 검증', '묘제를 통해 본 왜의 대외교류' 등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기존의 고고학 연구와 마찬가지로 도래인의 민족이동이 아니라 한반도 일본열도 간의 문화전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박물관의 구체적인 전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야요이 시대는 기존 전시에 비해 한반도 도래인의 일본이주에 관한 언급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한반도 문화 전파에 관한 내용이 늘었다. 명확히 도래인의 '옛 터전'에 대한 언급이 있는 전시는 한 군데 뿐이었다. 야요이 시대 초기에 새로운 땅을 찾아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정착되었다고 되어 있다. 도래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도래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반도 문화 전파의 매개자

34) 高田貫太(2012)「古墳時代の日朝関係史と国家形成論をめぐる考古学的整理」『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170集, p.69

정도로 파악되고 있을 뿐이었다.

고훈 시대는 기존 전시와 마찬가지로 양적, 질적 모두 도래인의 위상이 낮게 설정되어 있었다. 한반도 도래인에 관한 유일한 언급은, 5세기에 각지의 왕이 한반도 도래인을 수용한 결과 새로운 생활문화가 전해졌다는 것이 전부였다. 거기에서는 도래인의 '옛 터전'에 관해서는 한반도로 명기 되어 있지만 왜인이 주체적으로 도래인을 수용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도래 규모'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고, 도래인의 '역할'이 문화전파의 매개자로 파악되고 있는 점은 야요이 시대와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한반도에 전방후원분을 만든 왜인의 정치적 역할이 부각되어 있었다.

요컨대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한반도 도래인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고고학계의 인식을 답습하고 있다. 야요이 문화가 한반도에서 전파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대규모 도래 사실은 거부하는 입장이다. 극히 소수의 도래인이 북부 규슈에 도래하여 번식한 다음, 전국 각지에 확산했다고 하는 고고학계의 정설을 답습한 것으로 생각된다. 도래 규모가 작게 묘사되고 도래인의 정치적 역할이 등한시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패러다임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고훈 시대 역시 일본고고학의 문제가 반영되어 있었다. 고훈 시대는 일본국가의 성립시기이자 천황의 선조가 직접 집권했던 시기인 만큼 일본인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종교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 시대이다. 다카타는 문헌사학의 역사관으로부터 탈피해 고고학의 독자적 연구를 제한했으나[35] 이번 리뉴얼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이다.

필자는 특정 분야를 배제하거나 자신의 패러다임에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분야를 참여시켜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예부터 체질인류학에서는 한반도 도래인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는 연구자들이 많았다. 예컨대 도리이 류조(鳥居竜藏, 1870~1953)[36] · 우에다 쓰네키치(上田常吉, 1887~1966) · 고하마 모토쓰구(小浜基次, 1904~1970)[37] · 하니하라 가즈오(埴原和郎, 1927~2004)[38]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인류유전학자 사이토 나루아(斎藤成也, 1957~)[39] 등도 그 계열에 포함된다. 그들은 한반도 도래인을 문화전파나

35) 다카타는 일본열도 내의 지역사회의 교섭활동의 다양성을 부각하는 것과 한반도와 일본열도 일대를 '환해(環海) 지역으로 인식하는 것을 제안했다. 위의 글, p.83

36) 鳥居龍藏(1975)『鳥居龍藏全集 第1集』朝日新聞社, pp.504-505. 초출은「古代の日本民族移住發展の經路」(1916).

37) 小浜基次(1960)「生体計測学的にみた日本人の構成と起源に関する考察」『人類学研究』第7巻 第1-2号, 九州大学医学部解剖学教室人類学研究所, pp.56-65

38) Hanihara K.(1987) "Estimation of the Number of Early Migrants to Japan: A Simulative Study", 日本人類学会,『人類学雑誌』95巻3号, pp.391-403; 埴原和郎(1986)「骨から古墳人を推理する」森浩一 編『日本の古代5前方後円墳の時代』中央公論, pp.143-181

39) 斎藤成也(2017)『核DNA解析でたどる 日本人の源流』河出書房新社

교류의 매개체가 아니라 일본인의 '선조' 내지 그것을 구성하는 일부로 삼았다.

이번 리뉴얼 작업에 체질인류학자가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들의 패러다임만으로 전시를 원했던 고고학자의 뜻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이 결코 고고학에 특화한 박물관이 아니다. 일본국을 대표하는 공적인 사회교육의 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균형이 잡힌 학제적 전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参考文献】

세키네 히데유키(2015)「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전시에 나타난 한반도 도래인」『日本近代学研究』제49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235-256

_____(2016)「일본 고고학자의 한반도 도래인 인식 –일본 인류학자와의 대조를 통해서-」『東아시아古代學』第42輯, 東아시아古代學會, pp.256-257

上野祥史(2019)「テーマⅣ 倭の登場」『歴博』一般財団法人歴史民俗博物館振興会, pp.16-19

大林太良(1994)「民族移動」石川栄吉外編『文化人類学事典』弘文堂, p.751

金関丈夫(1976)『日本民族の起源』, 法政大学出版局, pp.1-397

斎藤成也(2017)『核DNA解析でたどる 日本人の源流』河出書房新社, pp.1-215

渋谷綾子(2014)「調査研究活動報告 国立歴史民俗博物館総合展示第1室(原始・古代)の新構築事業2012年度活動報告」『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186集, pp.277-293

渋谷綾子·上奈穂美(2017)「[調査研究活動報告] 国立歴史民俗博物館総合展示第1室原始古代の新構築事業 : 2015年度活動報告」『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206集, pp.115-125

高田貫太(2012)「古墳時代の日朝関係史と国家形成論をめぐる考古学的整理」『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170集, pp.69-86

田中良之(2014)「いわゆる渡来説の成立過程と渡来の実像」古代学協会 編『列島初期稲作の担い手は誰か』すいれん舎, pp.34-40

大学共同利用機関法人人間文化研究機構国立歴史民俗博物館(2013)「平成26年度概算要求にかかる運営上の諸課題等」大学共同利用機関法人人間文化研究機構国立歴史民俗博物館 編, 大学共同利用機関法人人間文化研究機構国立歴史民俗博物館, p.46

鳥居龍蔵(1975)『鳥居龍蔵全集 第1集』朝日新聞社, pp.504-505

中橋孝博(1993)「墓の数で知る人口爆発」『原日本人-弥生人と縄文人のナゾ』朝日新聞社, pp.30-46

埴原和郎(1986)「骨から古墳人を推理する」森浩一 編『日本の古代5前方後円墳の時代』中央公論, pp.143-181

藤尾慎一郎(2019)「1983年の開館以来のリニューアル歴年代にもとづく先史時代像の可視化その基本的な考え方と見どころとは!」『歴博』212, 一般財団法人歴史民俗博物館振興会, pp.1-3

_____(2019)「水田稲作の始まり」『歴博』212, 一般財団法人歴史民俗博物館振興会, pp.12-15

_____(2012)「総合展示第1室新構築について」『第1回展示プロジェクト委員会資料』大学共同利用法人人間文化研究機構国立歴史民俗博物館, p.5

松本武彦(2019)「テーマⅤ 倭の前方後円墳と東アジア」『歴博』一般財団法人歴史民俗博物館振興会, pp.20-23

Hanihara K.(1987) "Estimation of the Number of Early Migrants to Japan: A Simulative Study", 日本人類学会,『人類学雑誌』95巻3号, pp.391-403

https://www.rekihaku.ac.jp/research/list/joint/2012/eastasia.html(검색일: 2019.10.1)

https://www.rekihaku.ac.jp/research/list/joint/2009/noukou.html(검색일: 2019.10.1.)

https://www.rekihaku.ac.jp/research/list/joint/2005/sangokusi.html(검색일: 2019.10.1.)
https://www.rekihaku.ac.jp/research/list/joint/2005/sangokusi.html(검색일: 2019.10.1.)

논문투고일 : 2019년 10월 01일
심사개시일 : 2019년 10월 15일
1차 수정일 : 2019년 11월 11일
2차 수정일 : 2019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1월 18일

〈要旨〉

리뉴얼된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전시에 나타난 한반도 도래인

세키네 히데유키

이 글은 최근(2019)에 리뉴얼된 국립역사박물관의 전시에서 한반도 도래인에 관한 전시 내용을 통해 일본학계의 인식문제를 고찰하는 것이다. 전시에서는 고대의 한일관계가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문화전파로 해석되어 있으며 한반도 도래인의 일본 이주를 인정하는 시점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야요이 시대의 경우는 고고학계의 인식을, 고훈시대의 경우는 문헌사학계의 인식을 답습한 결과로 생각된다. 국립역사박물관이 공적 사회교육의 장으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한반도 도래인의 실상을 규명할 수 있는 체질인류학의 성과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Ancient Immigrants from the Korean peninsula as presented by renewed exhibi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Sekine, Hideyuki

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 of Japanese academic recognition of ancient immigrants from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recently renewed (2019) exhibition of Old- and Prehistory at the 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In the exhibition, ancient Korean-Japanese relations are interpreted as cultural diffusion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and lack to accept the perspective of migrants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Japan. The recognition presented in the museum is the result of following the views and understandings of archaeological research about the Yayoi period and the intake of historical studies on the Kofun period. In order for the National Museum of History to become a public social education venue,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results of physical anthropology that offers further clues about ancient immigrants from the Korean Peninsula.